

브라질, EU와 바이오연료 협력 강화

EU, 에탄올 보조금 폐지 공식 제안 ...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유럽연합(EU)과 브라질이 바이오에너지 대량생산을 위한 협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리아에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대체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브라질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EU-브라질 에탄올(Ethanol) 등 바이오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교토의정서에 따라 EU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바로수 위원장이 바이오에너지 세계시장 구축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앞서 브라질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는 최근 마리안 피셔 보엘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이 27개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에탄올 보조금 폐지를 공식 제안할 뜻을 밝혔다.

EU는 현재 에탄올 생산기업에 대해 ha당 45유로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에탄올 생산기업 보호를 위해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해 리터당 0.19달러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바로수 위원장과 피셔 보엘 위원장의 발언이 EU의 에탄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억제 등 당면목표를 위해서는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에너지 외에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EU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가솔린과 에탄올을 혼합사용하는 플렉스 자동차의 비중이 최소한 10%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3월 초 발표한 <브라질 대체에너지 산업에 관한 보고서>에서 “높은 가격 경쟁력과 전세계적인 대체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수출국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8년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량은 240억-250억리터, 내수시장 소비량은 200억리터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량은 미국 및 EU의 소비 증가에 따라 2007년 35억리터에서 40억리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21>